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에 대한 리해

리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어생활은 언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교제활동이며 사회생활의 한 분야입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증보판 98페이지)

언어생활은 언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교제활동이며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루고있다.

새 세기 정보산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있으며 이것을 반영하여 언어학분야에서도 수많은 학문들이 개척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에 대한 문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야란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단체에 공동으로 관계되거나 리용되는 분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생활의 다방면적이면서도 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다.

보통 공식사무분야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규정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사무분야로서 주로 법률,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있다. 이로 하여 공식사무문체의 대상도 당 및 국가기관, 군대의 공식문건, 사무문건, 각종 규범과 규정 등에 고착되어 쓰이는 글말체에 국한되어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분야가 보다 세분화된 오늘 공식사무문체만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진행되고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교제현상을 설명하기가 힘들게 되였다.

오늘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는 법률, 외교, 군사, 경제 등 공식사무분야는 물론 담화, 연설, 기자회견 등과 같은 정치생활

과 안내, 광고, 소개문 등 경제문화생활의 다방면적인 측면을 포괄하고있다.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풍부화된것은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공공분야의 구성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변화발전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벌리는 다양한 교제활동은 여러가지 양상을 띠고 진행되지만 어느것이나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물론 공공분야에서 진행되는 교제활동에는 입말이나 글말과 같은 자연언어뿐 아니라 몸짓이나 손짓, 표정과 같은 비자연언어(몸짓언어)도 있다.

여기서는 입말, 글말을 통한 언어교제만을 논의하려고 한다.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제활동과정에 실현되는 언어행위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일정한 사회조직이나 단체(또는 그러한 조직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가 일련의 정치적 및 행정실무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과 교제하는 과정에 진행되는 언어행위이다.

현대언어학에서 언어와 언어행위를 구분하는 원리에 기초하면 언어교제는 언어교제행위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언어》와 《언어행위》의 두 개념에 대하여 언어학에서와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언어행위》를 《언어》로 통칭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교제행위》를 간단히 《언어교제》라고 부르기로 한다.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는 크게 표현과 리해의 두 측면으로 구분해볼수 있다. 그것은 다른 언어행위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활동도 표현(말하기, 쓰기)과 리해(듣기, 읽기)의 통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교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서는 이 두 측면에서의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언어교제는 일정한 정보에 대한 표현과정이다.

언어교제의 표현은 필자(또는 화자)의 의사와 감정을 일정한 언어형식을 통하여 내보내는 과정이다. 다시말하여 언어요소와 언어표현수단으로 일정한 정보적내용을 형식화하여 발송하는 과정이다.

언어체제안에 있는 언어적수단(어휘적 및 문법적수단)이나 규칙은 언어행위표현의 수단이지만 언어자체가 곧 말이나 문장은 아니다. 다시말하여 이러한 수단이 일정한 사상이나 의사전달표현의 가능성으로는 되지만 곧 현실성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일정한 교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언어교제과정에는 언어재료와 언어구조규칙 그리고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선택하게 된다. 바로 언어의 선택은 일정한 정보를 언어로 표현할 때 표현하려는 내용과 교제환경에 가장 적합한 언어형식을 골라 사용하는것이다.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는 두가지 경우 즉 입말교제와 글말교제가 다 가능하다.

언어교제에서 언어의 선택으로는 우선 입말교제에서 말체의 선택을 들수 있다.

공공분야에서 언어교제가 만일 입말교제이면 교제대상과의 관계와 표현하려는 내용과 교제장소에 근거하여 합당한 입말체를 선택하여 표현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만일 교제대상이 잘 아는 친구인 경우라고 해도 공식적인 환경인것으로 하여 담화의 화제가 공적인것으로 되며 자연히 사무적성격의 사교적인 말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좌담회에서 발언하거나 경축례식에서 축사를 하거나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는 자연히 공식적인 말체를 쓰게 된다.

언어교제에서 언어의 선택으로는 또한 글체의 선택이 있다.

여기서는 교제의 목적, 교제대상의 특성과 표현하려는 내용에 근거하여 적중한 서사어체를 선택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실례로 만일 상품설명서를 서술하려면 설명문체를 선택하여 서술하여야 하며 광고문을 쓰려면 설명문체, 문학문체, 신문문체 등 다양한 문체의 표현형식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언어교제에서는 표현능력이라는 개념이 설정되게 된다.

언어교제의 표현능력은 크게 입말표현능력과 서사창작성능력으로 구분된다.

교제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서로의 교류를 통하여 일정한 사회단체나 조직들간에 정보교류를 실현하는것이다.

언어교제에서는 우선 입말표현능력을 갖출것을 요구한다.

공공분야의 언어교제에서 입말언어교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많은 사회조직들간의 대화, 담판, 문답, 연설 등은 입말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언어교제이며 이것은 해당 성원들의 높은 입말표현능력을 요구한다.

언어교제에서는 또한 강한 서사능력을 가지고 각종 문체의 기교에 정통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일정한 사회조직들이 자기에게 복무하는 문서와 출판물을 가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실례로 조사보고, 연구보고, 공보, 광

고, 교제문서, 신문, 기관선전물 등과 같은 것들은 다 서사어로 쓰여있으며 이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일정한 서사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서사능력은 단순한 철자법으로부터 문장짓기, 본문작성에 이르기까지 오유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문제뿐 아니라 문체론적 표현능력 나아가서 문자의 형상색채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언어교제에서 표현활동은 교제주체의 능동적인 언어표현활동으로서 이것은 크게 다섯가지 요소(교제주체, 교제대상, 교제정보, 정보매체, 교제환경)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제주체는 제일가는 요소로서 교제정보, 정보매체와 교제대상을 제약하고 반대로 교제대상, 교제정보, 교제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언어교제에서 교제주체는 정보의 내용과 교제대상의 여러가지 요소와 구체적인 언어환경에 의거하여 적당한 정보매체를 선택하고 교제대상이 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구를 짜야 한다.

다음으로 언어교제는 표현된 정보에 대한 이해과정이다.

언어교제의 이해는 독자(또는 청자)가 필자(또는 화자)의 의사와 감정을 일정한 언어형식을 통하여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해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의 사상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언어행위에 리용된 단어와 문장안에서 단어들간의 관계, 문체론적수단과 수법, 기타 언어표현 방법도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독자(또는 청자)는 필자 (또는 화자)가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와 단어들간의 의미 그리고 표현수법에 이르기까지 표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행위에 적용된 언어는 모국어일 수도 있고 외국어일 수도 있다.

모국어인 경우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어인 경우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큰 차이보다 매우 작은 차이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즉 어휘들 사이에 같거나 비슷한 관계에 있는 대역어들을 정확히 선택리용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해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의 사상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또한 단어의 의미추리를 잘 응용하여 표현자의 말속에 들어있는 언어밖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단어의 의미추리는 단어들간의 의미관계에 근거하여 문장의 문자밖의 의미를 추리해내는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의미추리에는 문장에서 단어들간의 내포관계나 문장들간의 가설관계에 근거하여 언어밖의 의미에 대해 추리하는 내포추리와 가설추리가 있다.

실례로 내포관계를 리용한 의미추리를 보면 누가 《박성은 박철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했다면 내포관계에 근거하여 《박철은 박성의 아들이다.》는 내용을 추리해낼 수 있는 것이다. 또 《교실은 도서관의 남쪽에 있다.》라고 하면 《도서관은 교실의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추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실례로 가설관계를 리용한 가설추리를 들 수 있다. 가설추리는 내포추리와 달리 문장의미간의 가설관계에 기초하여 문장의미밖의 의미를 추리해내는 것이다. 가령 누가 《김동무가 또 왔군.》라고 말했다면 가설관계에 근거하여 《김동무가 이전에 왔었다.》는 것을 추리해낼 수 있다. 또 《우리의 생활은 앞으로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지금 생활은 아주 행복하다.》는 정보를 추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어교제에서 이해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표현에서는 진술내용에 대한 언어기교, 정확성, 명백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제기되지만 리해에서는 이런 의무가 제기되지 않기때문이다.

둘째로, 표현하는 과정은 언어체계에서 일련의 동의형식에 대한 선택으로서 이러한 선택은 표현하려는 진술내용자체를 고려해야 할뿐아니라 듣는 대상의 언어접수 능력과 문화수양 등 조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해자의 언어사용(언어리해)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셋째로, 발음과 서사의 속도가 듣고 보는 속도에 비해 크게 차이나기때문이다.

넷째로, 표현과정에는 높은 기교성과 예술성이 필요하지만 리해에서는 그렇게 많은 창조가 필요없기때문이다.

언어교제는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교제를 진행하는 행위이며 언어를 응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사상과 감정을 교류하는 사회활동이다.

오늘 공공분야에서의 언어교제는 정보적내용의 표현과 리해의 측면에서뿐아니라 대중의 리익을 존중하는 문제, 정보의 표현적질을 보장하는 문제 등 각이한 측면의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공공분야에서 사람들의 교류와 협조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언어교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언어교제의 일반적원칙과 언어 표현수법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언어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더 잘 이바지해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다.

(필자는 중국박사원생임)